

2022 가을 반야불교문화연구원 인문학강의

**가을 산사에서 만나는
서양철학과 불교**

2022. 10. 22. ~ 11. 9. 매주 토요일 오후 1:30~3:00
영축총림 통도사 반야암

(사)반야불교문화연구원

목 차

- 칸트와 불교 || 한자경 교수 (이화여대) 1
- 화이트헤드의 종교철학과 다르마키르티 || 권서용 교수 (부산대)..... 7
- 니체와 불교의 치유적 사유 || 김정현 교수 (원광대) 17
- 후설의 현상학과 불교 || 김영필 교수 (대구교대) 25
- 플라톤과 불교 || 조해정 교수 (동아대) 29

불교와 칸트

인간과 세계 존재에 대한 이해의 동이점

2022.10.22
한자경(이화여대 철학과)

칸트(I.Kant, 1724-1804)

- ▶ 프로이센(독일)의 수도 쾨니스베르크(현 러시아의 칼린그라드)
- ▶ 칸트의 근본 물음: - “인간이란 무엇인가?”
 <순수이성비판>(1781)
 분석론 - 진리: 진(眞) - “나는 무엇을 알 수 있는가?”
 변증론 - 자유
 <실천이성비판>(1788)
 분석론 - 도덕: 선(善) - “나는 무엇을 행해야 하는가?”
 변증론 - 종교: 성(聖) - “나는 무엇을 바래도 되는가?”
- ▶ <판단력비판>(1790)
 분석론 - 예술: 미(美)
 변증론 - 생명

유식과 칸트철학의 공통점

유근신 + 기세간 ┌-----┐	경험자아 + 세계 ┌-----┐	꿈속 나 + 꿈속 세계 ┌-----┐
식소변=가유(假有) 실유(實有) 아님	현상(Erscheinung) 물자체 아님	꿈세계 실재 아님
↑	↑	↑
제8아뢰야식 본각=공적영지	초월적 자아 의식	꿈꾸는 나 = 꿈깨는 나

경험세계가 가유이고, 현상임을 밝힘!

불교는 생사문제에서 출발, 칸트는 인식문제에서 출발. 결론은 같음

유식과 칸트의 차이점1

┌ 칸트: 선형구조만 밝힘

└ 유식: 선형과 경험의 순환구조를 밝힘

세계 → 세계 경험

세계 → 세계 경험

↓ ①<현행존자>

↑ ③<종자생현행>

종자 → → → → → → 종자

② <종자생종자>

경험이 선형을 규정
<실재론, 경험주의적 관점>

선형이 경험을 규정
<관념론, 선형주의적 관점>

로크, 흄

라이프니츠, 칸트, 후설

①만 보고 ③을 못 봄

③만 보고 ①을 못 봄

세계가 관념(종자)의 변형임을 간과

선형(개념들)이 경험의 축적임을 간과

유식과 칸트의 차이점2

┌ 칸트: 현생의 의식에만 국한된 사유 = 문해, 사해

└ 유식: 수행을 통해 의식의 한계를 넘어섬 = 문해, 사해 + 수해

▶ 붓다의 통찰:

업보의 원리가 생사 너머 윤회를 성립시키는 근거임을 통찰
현생의 탄생 이전과 죽음 이후, 즉 전생과 내생의 연결을 관함

▶ 유식의 통찰:

업보를 성립시키는 업력(종자)이 심층 아뢰야식에 함장되고
그 아뢰야식 내 종자의 현행화로 세계가 만들어짐을 통찰

유식과 칸트의 차이점3

- ┌ 칸트: 인과의 원리는 현생의 현상에만 타당
 - └ 유식: 업보의 원리는 윤회하는 3계에 타당. 천신(天神) 영역을 포함
-
- ▶ 칸트: 자연 인과성
 - 인과나 실체개념은 인간 지성의 범주
 - 인과성은 경험대상인 현상세계에만 적용됨
 - 현상세계는 5감의 대상세계에 국한됨

 - ▶ 불교: 업보의 인과성
 - 중생의 업(業)과 그로 인한 보(報)
 - 업보의 원리는 중생의 생사 한계를 넘어 3계에 두루 적용됨
 - 3계, 즉 육계의 6도+색계 무색계의 천(天)에 적용되는 원리

유식과 칸트의 차이점4

- ┌ 불교, 심층마음의 자가지(본각)과 수행 통한 견성(見性) 주장
- └ 칸트, 초월자아의 인식불가능성

서양철학의 한계. 비트겐슈타인

- ▶ 세계의 한계로서의 형이상학적 주체는 알 수 없음
- ▶ “자아는 ‘세계는 나의 세계이다.’라는 점을 통해 철학에 들어온다. 철학적 자아는 인간이 아니고 인간 신체도 아니며 또는 심리학이 다루는 인간 영혼도 아니다. 그것은 형이상학적 주체, 세계의 한계이지 세계의 일부가 아니다.”
- ▶ “말해질 수 있는 것인 자연과학의 명제들 이외에는 아무 것도 말하지 않는 것이 ... 철학의 올바른 방법일 것이다.”
- ▶ “말할 수 없는 것에 관해서는 우리는 침묵하지 않으면 안된다.”(『논리철학논고』)
- ▶ ‘너 자신을 알라!’는 2500년 동안 실패. 수행이 빠졌기 때문

수행지향적 사고(동) ↔ 신앙지향적 사고(서)

동양/불교	서양/기독교
마음의 자가지(본각): 있음 (마음은 이미 마음을 앎)	없음 인간을 아는 자는 신(神)
삶의 의미: 수행! (본각의 깨달음 지향)	믿음 (신에의 믿음)
지향점: 성불(지혜+자비) (일체지의 부처 되기)	사랑 (신이 되고자 함은 원죄)

강사 약력

이화여대 철학과 학부 및 석사 졸업

독일 프라이브르크 대학에서 칸트로 학위

그 후 동국대학교 불교학과에서 유식불교로 학위

현재 이화여대 철학과 교수

저서로 <칸트철학에의 초대>, <불교의 무아론>, <심층마음의 연구>, <마음은 어떻게 세계를 만드는가> 등이 있음

화이트헤드 종교철학과 다르마키르티

권서용(다르마키르티사상연구소장)

1. 화이트헤드(A.N.Whitehead, 1861~1947)

1-1. 화이트헤드(1861~1946)는 누구인가?

*영국의 철학자, 수학자, 논리학자. 물리학자

*영미권의 마지막 위대한 철학자(질 들뢰즈)

*20세기의 데카르트(허버트 리드)

*이름이 W로 시작하는 20세기 가장 위대한 철학자는 누구였는가?" 대부분의 교양 있는 미국인들은 "비트겐슈타인(Wittgenstein)"이라고 대답할 것이다. 아니다. 올바른 대답은 "화이트헤드(Whitehead)"인데, 그는 확실히 이름이 W로 시작하는 또 하나의 철학자이지만, 엄청나게 더 대답하며, 그리고 불행하게도 훨씬 덜 연구된 철학자이다.(브뤼노 라투르)

1-2. 생애

화이트헤드는 1861년 2월 15일, 영국의 켄트 주 램즈게이트에서 태어났다. 그의 할아버지인 토마스 화이트헤드는 웨이커 교도인 조지 화이트헤드의 자손으로, 1815년에 램즈게이트의 사립 학교장이 되었으며, 아버지 앨프레드 화이트헤드 역시 할아버지의 후임으로 교장직을 역임한다. 이후 아버지 화이트헤드는 성공회의 성직을 겸임, 각종 지위를 거치며 고위 성직자가 된다. 화이트헤드의 어린 시절은 이러한 종교적이고 교육적인 분위기를 자양분으로 삼고 있었다. 청소년기 화이트헤드는 남 잉글랜드 중부 도셋트 주의 사립 사변 학교에 입학, 라틴어와 그리스어 같은 고전 교육을 받았으며 낭만주의 시인인 워즈워드나 퍼시 비시 셸리의 시를 즐기거나 각종 스포츠 활동에 참여하는 등 예체능에도 관심을 보였다.

1880년, 케임브리지 대학교의 명문인 트리니티 칼리지에 입학한다. 전공은 수학이었으며 종교, 철학, 정치, 예술, 문학 등 방대한 분야에 관심을 가진다. 이후 특별 연구원으로 선발되며 1885년에는 트리니티 칼리지의 수학 강사가 된다. 이 시기 독자적인 연구를 통해 첫 저서인 『보편 대수론』을 출판한다. 이듬해인 1890년, 에벌린 웨이드(Evelyn W. Wade)와 결혼하며 이후 그녀와의 사이에서 2남 1녀의 자식을 둔다.

1903년, 화이트헤드는 『보편 대수론』의 업적을 인정받아 왕립 협회의 회원으로 선출된다. 같은 해에 자신의 제자이자 조교였던 버트런드 러셀의 제안으로 수학 체계에 대한 연구를 함께 진행하였고 7년이 지난 1910년, 『수학 원리』를 출간하는데, 집필 당시 수학적 형식에 대한 부분은 화이트헤드가 주로 담당했으며, 철학적 기초에 대한 부분은 러셀이 주로 담당했다. 이 시기 화이트헤드는 케임브리지 대학을 떠나 런던 대학교로 직장을 옮기며 1911년 런던 대학의 강사가 된다. 런던 대학에 재직하면서 『자연 인식의 여러 원리에 관한 연구』, 『자연의 개념』, 『상대성 원리』와 같은 과학철학 관련 저서들을 내놓게 된다.

1924년, 런던 대학에서 퇴임하고 하버드 대학교의 초청을 받아 철학과 정교수로 부임한다. 이 시기 화이트헤드는 논리학과 과학 철학을 넘어 형이상학으로의 확장을 도모하며 『과학과 근대 세계』, 『형성 과정에 있는 종교』, 『상징 작용: 그 의미와 효과』 삼부작을 출간한다. 이 세 저술을 토대로 '과정 철학', 내지는 '유기체 철학'이라 불리는 고유의 철학 체계를 수립하는데 그 산물이 주저인 『과정과 실재』이다. 이후로도 『이성의 기능』, 『관념의 모험』과 같은 저작을

출간하며 자신의 철학 체계를 검증하고 확장한다.

1947년 12월 30일, 86세의 나이로 하버드의 교외에서 사망한다.

1-3. 주요 저작

『보편 대수론』(1898) , 『수학 원리』(1910~1913, 러셀과 공저), 『수학이란 무엇인가』(1911), 『공간, 시간 그리고 상대성』(1915), 『과학과 근대세계』(1925), 『과정과 실재』(1929), 『관념의 모험』(1933), 『자연과 생명』(1934), 『사고의 양태들』(1938), 『형성 과정에 있는 종교』 , 『상징 작용: 그 의미와 효과』, 『이성의 기능』

2. 다르마키르티(धर्मकीर्ति: , Dharmakīrti, 600~660, 法稱)

2-1. 동시대 철학자들

A.D.7세기, 이 시기 동아시아문명에서는 위대한 철학자이자 종교인들이 종교적 수행을 근간으로 철학적 상상력을 펼치고 있었다. 중국에서는 삼장법사 현장(玄奘, 602~664)과 화엄학의 대가 현수 법장(法藏, 643~712), 한국에서는 원측(圓測, 613~696)과 의상(義湘, 625~702) 그리고 동아시아불교교학의 완성자이자 선불교의 문을 연 원효(元曉, 617~686) 등이 같은 시대, 같은 공간에서 서로에게 영향을 주면서 집단적 지성의 연대가 이루어진 시대가 7세기이다.

이들과 같은 시기에 인도문명에서는 위대한 종교인이자 철학자가 출현하는 데 그가 바로 다르마키르티이다. 그의 생몰연대는 후라우왈너(Frauwallner)의 연대 산정에 따르면 600~660년이다. 정확히 현장과 동시대인이었기 때문에 현장에 의해 많은 인도불교철학자들이 한문문화권에 소개되었지만 다르마키르티만은 그의 저서들이 한역되지 못했던 것이다. 다르마키르티(Dharmakīrti, 600~660)의 다르마는 법(法)이며 키르티는 칭(稱)이다. 그래서 한역이름으로는 법칭(法稱)이라 한다.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깊은 사유와 논리적 언설로 부처님의 법을 전했다고 칭송되는, 법에 있어서는 최고라고 평가되는 인물이라는 의미가 함의되어 있는 사상가가 다르마키르티이다.

2-2. 인도불교철학의 집대성자

인도의 4대학파인, 설일체유부, 경량부, 중관학파, 유식학파를 집대성한 불교인식 논리학의 완성자[개조, 디그나가(陳那, 480~540)]이다.

설일체유부=我空法有, 경량부=一切剎那滅, 중관=一切皆空, 유식=萬法唯識

2-3. 저서(因明七論, 七部量論)

- 《양평석》(量評釋, Pramāṇavārttika)
- 《정량론》(定量論, Pramāṇaviniścaya)
- 《이적론》(理滴論, Nyāyabindu)
- 《인적론》(因滴論, Hetubindu)
- 《관계론》(關係論, Saṃbandhaparīkṣā)
- 《쟁리론》(諍理論, Vādanyāya)
- 《오타론》(悟他論, Saṃtānāntarasiddhi)

3. 화이트헤드와 다르마키르티의 사유체계

〈철학의 목적〉

철학적 설명의 목적은 흔히 잘못 이해되고 있다. 그것이 하는 일은 보다 구체적인 사물로부터 보다 추상적인 사물이 출현하는 것을 설명하는 일이다. 구체적이며 특수한 사실이 어떻게 보편적인 것들로부터 구성될 수 있는 것인가라고 묻는 것은 전적으로 잘못이다. 그 답은 결코 그럴 수 없다는 것이다. 진정한 철학적 물음은 구체적인 사실이 그 자신으로부터 추상되는, 그러면서도 그 자신의 본성상 관여하고 있는 그런 존재들을 어떻게 나타내 보일 수 있는 것인가? 라는 것이다. 달리 말하면 철학은 추상에 대하여 설명하는 것이지 구체에 대하여 설명하는 것이 아니다.

철학은 추상에 대해 설명하는 것이지,
구체에 대해 설명하는 것이 아니다.
구체는 기술하는 것이다.

3-1. 존재론

3-1-1. 화이트헤드의 궁극적 존재, 현실적 존재(현실적 계기)

〈현실적 존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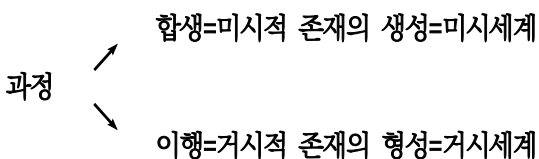
현실적 계기라 불리는 현실적 존재는 세계를 구성하고 있는 궁극적인 실재적 사물이다. 이들은 데모크리토스의 원자들처럼 미시적 존재로서 사회 또는 결합체라 불리는 이들의 집합체는 우리가 일상적으로 경험하는 거시적 존재, 예컨대 나무나 집, 사람 같은 것들을 형성한다. 그러나 데모크리토스의 원자들은 활성이 없고 소멸 불가능한 물질적 질료인 데 반해 화이트헤드의 현실적 존재들은 활성과 무상성을 지닌 복잡하고도 상호 의존적인 경험의 방울들이다.

현실적 존재=현실적 계기=궁극적 존재=실재적 사물

〈현실적 존재의 기술〉

현실적 존재는 두 가지 기술을 필요로 한다는 것, 하나는 다른 현실적 존재의 생성에 있어서의 객체화의 가능성을 분석하는 기술이고, 또 하나는 그 자체의 생성을 이루고 있는 과정을 분석하는 기술이다. 객체화라는 술어는 한 현실적 존재의 가능태가 다른 현실적 존재 속에서 실현되는 특수한 방식을 가리킨다. 현실적 존재가 다른 현실적 존재에 객체화가 되는 과정을 ‘이행(移行)’이라 하고, 여러 여건에 의해 하나의 현실적 존재가 생성되는 과정을 ‘합생(合生)’이라 한다. 이행에 의해 거시적 세계가 구성되며, 합생에 의해 미시적 세계가 형성된다. 따라서 화이트헤드에 의하면 과정은 두 가지가 있다. 하나는 미시적 세계가 생성되는 합생의 과정이고, 또 하나는 거시적 세계가 구성되는 이행의 과정이다.

현실적 존재=과정으로서의 존재=생성으로서의 존재



〈존재론적 원리(ontological principle)〉

생성의 과정이 임의의 특정 순간에 순응하고 있는 모든 조건은 그 근거를 그 합생의 현실적 세계 속에 있는 어떤 현실적 존재의 성격에 두고 있거나 합생의 과정에 있는 그 주체의 성격에 두고 있다고 천명한다. 존재론적 원리에 따르면 알지 못하는 곳으로부터 세계 속으로 유입되는 것은 아무 것도 없다. 현실적 존재가 없으면 근거도 없다. 따라서 근거를 탐색한다는 것은 하나 내지 그 이상의 현실적 존재를 탐색하는 것을 말한다.

존재론적 원리=현실적 존재가 없으면 근거도 없다.

〈상대성 원리〉

다수의 존재들로부터 하나의 현실태가 생성되는 실재적인 합생에 있어 요소가 될 수 있다는 가능성은 모든 현실적 존재와 비현실적 존재가 지니고 있는 하나의 일반적인 형이상학적 성격이며, 그 우주에 있어서의 모든 항목은 각 합생 속에 포함되어 있다는 것, 다시 말하면 ‘있는 것’의 본성에는 모든 ‘생성’을 위한 가능성이 속해 있다는 것, 이것은 상대성 원리이다.

상대성 원리=‘있는 것’의 본성에는 모든 ‘생성’을 위한 가능성이 속해 있다는 것

〈과정의 원리〉

현실적 존재가 어떻게 생성되고 있는가라는 것이 그 현실적 존재가 어떤 것인가를 결정한다는 것, 따라서 현실적 존재에 대한 두 가지 기술은 서로 독립해 있는 것이 아니다. 현실적 존재의 있음은 그 생성에 의해 구성된다. 이것은 과정의 원리이다.

과정의 원리=현실적 존재의 있음은 그 생성에 의해 구성된다.

3-1-. 다르마키르티의 궁극적 존재, 바스투(vastu, 현실적 존재)

다르마키르티의 철학

세속제=唯識철학=三界虛妄但是一心作=一切唯心造=萬法唯識
승의제=中觀철학=一切皆空=我空法空

〈현실적 존재, 인식되는 것이 존재하는 것이다, 유식의 존재론〉

인식수단은 2종이다. 왜냐하면 인식대상이 2종이기 때문이다. 즉 대상은 인과적 효과성이든가 혹은 인과적 효과성이 아니든가 둘 중의 하나이기 때문이다. 눈병에 걸린 눈의 인식에 현현하는 털 등은 대상이 아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대상이라고 확신할 수 없기 때문이다.

덧붙여 말하면, 인식수단이 2종인 것은 그것 이외에 다음과 같은 이유에 의거한다. 즉 인식대상은 유사한 것이든가 혹은 유사한 것이 아니든가 둘 중의 하나이기 때문이다. 또한 인식대상은 언어의 지시대상이든가 혹은 언어의 지시대상이 아니든가 둘 중의 하나이기 때문이다. 또한 인식대상은 다른 동력인(動力因)이 있을 때 앞(dhi)이 존재하든가 혹은 앞이 존재하지 않든가 둘 중의 하나이기 때문이다.

여기서 인과적 효과성 그것은 궁극적 차원의 존재[勝義有]이며, 다른 것은 일상 언어 차원의 존재[世俗有]이다. 이 둘은 [전자는] 자상(自相), [후자는] 공상(共相)이라 불린다.

그것(지각)의 대상은 자상이다. 가깝고 멀고에 따라 지각의 현현에 차이가 있는 대상이 자상이다. 그것만이 승의적 궁극적 차원의 존재이다. 바스투(vastu, 현실적 존재)는 인과적 효과성을 본질로 하기 때문이다.

〈연기의 원리=상대성 원리〉

어떤 것(x)의 존재가 그것[결과가 되는 것(y)]에 항상 수반한다는 방식으로 [다른 어떤 것(Y)을] 보조하는 것인 경우, 그것(x)은 (y)의 원인이다. 따라서 ('x가 있다면, y가 있다.'라고 하여 그 원인) 제7격으로 기술된다. 혹은 '그것에 근거하여', 또는 '[어떤 것의] 생성에 의해'라도 [제5격이 세존에 의해] 기술된다.

〈연기의 공식〉

이것이 있으면 저것이 있다.

이것이 생기면 저것이 생긴다.

이것이 없으면 저것이 없다.

이것이 소멸하면 저것이 소멸한다.

3-2. 인식론

〈화이트헤드의 현실적 존재=파악(prehension)〉

현실적 존재에 대한 그 가장 구체적 요소들로의 최초의 분석은, 그 현실적 존재가 그것의 생성 과정에서 생겨났던 여러 파악들의 합생임을 드러내 보여준다는 것, 그 다음의 모든 분석은 파악에 대한 분석이며, 파악에 의한 분석은 분할이라고 불린다. 모든 파악은 세 가지 요인으로 이루어져 있다는 것, 첫째 파악하는 주체, 즉 그 파악을 자신의 구체적인 요소로 하고 있는 현실적 존재, 둘째 파악되는 여건, 셋째 그 주체가 그 여건을 파악하는 방식인 주체적 형식. 현실적 존재에 대한 파악, 즉 그 여건에 현실적 존재가 포함되어 있는 파악은 물리적 파악이라 불린다. 그리고 영원한 객체에 대한 파악은 개념적 파악이라 불린다. 이 두 가지 유형의 파악의 주체적 형식 중 어느 것도 반드시 의식을 포함하고 있어야 할 필요는 없다. 두 종류의 파악이 있다는 것, 즉 첫째 느낌이라고 불리는 긍정적 파악과 둘째 느낌으로부터 배제하는 것이라고 하는 부정적 파악, 부정적 파악도 주체적 형식을 가지고 있다. 부정적 파악은 그 여건으로 하여금, 그 주체의 통일성을 구성하는 파악의 전진적 합생에 있어 작용하지 못하도록 한다.

현실적 존재=파악

파악하는 주체

파악되는 대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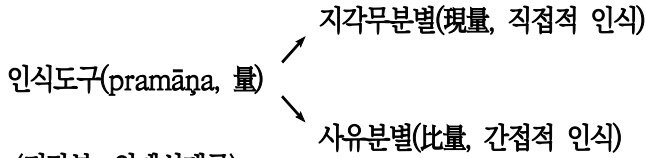
주체적 형식(주체가 대상을 파악하는 방식)

〈다르마키르티의 현실적 존재=인식(pramāṇa)〉

[궁극적 존재의 차원에서는] 인식 자체는 [하나의 획기적 전체로서 생기며, 또한 생기자마자 소멸하기 때문에] 분할할 수 없는 것이다. [다만] 전도된 견해를 가진 사람들이 [하나의 획기적 전체로서 생기며, 또한 생기자마자 소멸하는 인식 자체를] 마치 파악되는 대상과 파악하는 주관과 인식(자기인식)이 차이를 갖는 것처럼 본다.

또한 이 [인식]대상·[인식]수단·인식결과라는 확립은 [궁극적 차원에서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해도, [일상 언어 차원에 서는] 지각에 따른 분별에 의해 파악되는 대상·파악하는 주관·[파악을 본질로 하는] 인식[작용의 확립]이 행해진다.

인식(도구)만이 존재한다.



〈경량부, 외계실재론〉

- 외부대상 - 인식대상(所量, 相分)
- 대상형상 - 인식수단(能量, 見分)
- 대상인식 - 인식결과(量果, 自證分)

〈유식, 유심론〉

- 대상형상 - 인식대상(所量, 相分)
- 주관형상 - 인식수단(能量, 見分)
- 자기인식 - 인식결과(量果, 自證分)

3-3. 종교론

3-3-1. vastu로서의 佛

그것(지각)의 대상은 자상이다. 가깝고 멀고에 따라 지각의 현현에 차이가 있는 대상이 자상이다. 그것만이 승의적[궁극적 차원의] 존재이다. vastu는 인과적 효과성을 본질로 하기 때문이다.

인식도구(pramana)은 정합적 인식이다. 정합적 인식이란 [인식대상에] 인과적 효과[를 미치고 있는 인식]이다.

마찬가지로 불[세존]은 인식도구(프라마나)이다. 불생을 부정하기 위해서 '부타'라는 말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논증에 의거한 진리성을 갖추고 있다.¹²⁾ 바른 인식은 결코 상주하는 것이 아니다. 왜냐하면 궁극적 실재(현실적 존재, vastu)에 대한 인식이 바른 인식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 인식대상은 무상이기 때문에 그 인식도 무상이다. 계기적인 것(무상한 것)이 상주를 본질로 하는 존재로부터 생긴다는 것은 있을 수 없기 때문이다. [무상한 존재]에 의존하여 [상주를 본질로 하는 존재가 무상한 존재를 낳는다는 것은] 모순이기 때문이다. 인식이 상주를 본질로 한다고 해도 바른 인식일 수는 없다.

자비 때문에 또한 타자를 위해서 모든 것을 실천하는데 노력하기 때문에 [불은] 바른 인식(종교적 권위)이다. 환언하면 '구제'란 사성제의 개진이다.

지각무분별과 사유분별 = 인식도구(프라마나)
 佛[世尊] = 인식도구(프라마나)=종교적 권위

3-3-2. 현실적 존재로서의 신

현실적 존재-현실적 계기라고도 불린다-는 세계를 구성하는 궁극적인 실재하는 사물이다. 보다 더 실제적인 어떤 것을 발견하기 위해 현실적 존재의 배후로 나아갈 수 없다. 현실적 존재들 간에는 차이가 있다. 신은 하나의 현실적 존재이며, 아득히 멀리 떨어져 있는 텅 빈 공간에서의 지극히 하찮은 한 가닥의 현존도 현실적 존재이다. 그런데 비록 그 중요성에서 등급이 있고 그 기능에서 차이가 있기는 하지만, 현실태가 예증하는 여러 원리에서 볼 때 모든 현실적 존재들은 동일한 지평에 있는 것이다. 궁극적 사실은 이들이 하나같이 모두 현실적 존재라는 것이다. 그리고 이 현실적 존재들은 복잡하고도 상호 의존적인 경험의 방울들이다.

신은 형이상학적 원리들의 붕괴를 막기 위해서 불러들여진, 모든 형이상학적 원리들로부터의 예외자로 취급되어서는 안 된다. 신은 형이상학적 원리들의 주요한 예증사례이다.21)

현실적 존재=현실적 계기=궁극적 존재=실재적 사물

현실적 존재=먼지=신

3-3-3. 불의 본성

먼 곳을 보든 보지 아니하든 원하는 실상(tattva)을 보아야 한다. 먼 곳을 보는 자가 바른 인식[종교적 권위]이라면 오게나. [와서 먼 곳을 보느] 독수리에게 경배하게나.27)

독수리처럼 수 킬로 멀리 떨어진 곳까지 먹이를 볼 수 있는 뛰어난 눈의 능력을 가진 것이 일체지자라면 그러한 능력은 독수리가 최고이기 때문에 독수리를 일체지자로 숭배하는 것이 어떤가라고 다르마키르티는 조소(嘲笑)하는 것이다. 그에 의하면 그러한 동물적 감각능력이 아니라 존재의 실상을 여실하게 보는 눈 즉 혜안(慧眼)을 가진 자야말로 일체지자라 해야 한다. 또한 다르마키르티는

“따라서 (바른 인식이 되는 인물을 추구하는 것은 종교적 실천을 주안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사람이 가진 실천해야 할 모든 사태에 관한 인식이 고찰되지 않으면 안 된다. 그가 곤충의 수(kiṭṭasaṅkhyā)를 모조리 다 알고 있다고 해도 (그것이) 우리들에게 무슨 도움이 될까?.”

“버려야 할 것과 취해야 할 것의 실상을 그 원인과 함께 가르치는 분(불)이 종교적 권위(pramāṇa, 바른 인식)라고 인정된다. 그런데 (그것 이외의) 일체를 가르치는 자는 [프라마나(종교적 권위, 바른 인식)]일 수는 없다.”

“자비를 증대하고 나서 타자의 고통을 견디지 못하고 [마음에서] 솟아나는 대비자(dayāvān)는 [중생의] 고통을 버리게 하기 위해서 방책을 궁구한다. 얻어야 할 것 (고의 소멸)과 그 원인(고를 소멸하는 길)을 보지 못하는 자가 그것을 설하는 것은 어렵기 때문이다.”

“[불은] 자비에 의해서 가장 수승한 것을 설하고, 지혜에 의해서 추론인을 동반한 진실을 설한다. 그리고 그것을 기술하려고 노력하는 분이기 때문에 바른 인식(종교적 권위)가 되는 것이다.”

의도→일체지자=전지전능한 존재=프라마나=종교적 권위

불교→불=사성제=중생구제=프라마나=종교적 권위

부처의 본성=지혜와 자비

3-3-4. 신의 본성

모든 현실적 존재와 마찬가지로 신의 본성은 양극적이다. 신은 원초적 본성과 결과적 본성을 갖고 있다. 신의 결과적 본성은 의식적이다. 그것은 신의 본성의 통일성에 있어서의, 그리고 신의 지혜의 변형을 통한, 현실세계의 실현이다. 원초적 본성은 개념적이며, 결과적 본성은 신의 물리적 느낌들이 신의 원초적 개념들 위에 짜여 들어간 것을 말한다. 신의 본성의 한 측면은 신의 개념적 경험으로 구성된다. 이 경험은 그것이 전제하는 어떠한 현실태에 의해서도 제한되지 않는 세계 내의 원초적 사실이다. 그러므로 그것은 무한한 것으로서 어떠한 부정적 파악도 수반하고 있지 않다. 신의 본성의 이러한 측면은 자유롭고 완전하며, 원초적이고, 영원하며, 현실성을 결하고 있고, 또 무의식적이다. 다른 쪽의 측면은 시간적 세계에서 파생된 물리적 경험과 더불어 생겨나고, 이어서 원초적 측면과 통합되기에 이른다. 그것은 결정되어 있고, 불완전하며, 결과적이고 영속적이며 완벽하게 현실적이면서 의식적이다. 신의 필연적인 선성은 신의 결과적 본성의 결정성을 표현하고 있다.

기독교의 신=전지전능한 초월적 존재

화이트헤드의 신=현실적 존재=원초적 본성(개념적 느낌)+결과적 본성(물리적 느낌)

신의 원초적 본성-세계에 영향

신의 결과적 본성-세계로부터 영향을 받음

3-3-5. 부처와 인간(세계)과의 관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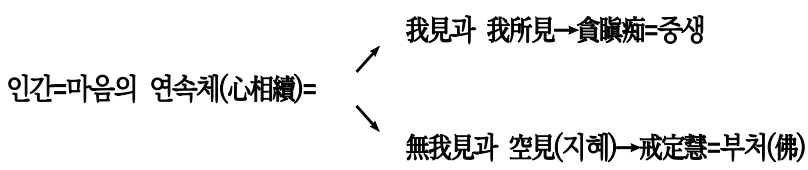
자비는 [불이 바른 인식(종교적 권위)임을] 정립하는 것이다. 그것(자비)은 반복된 [마음의] 수습(abhyāsa)으로부터 (일어난다). 마음은 신체에 의존하기 때문에 수습이라는 것이 성립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그렇지 않다. 신체가 마음의 근거임은 부정되기 때문이다.

[반대논사가 말하기를] 수행에 의해서 [마음이] 전변한다고 해도 [마음의] 본성을 넘어설 수 없다. 도약(跳躍)이나 뜨거운 물(熱水)과 같다. [답한다.] 만약 그것이 행해진다고 한다면 [도약은] 두 번의 노력에 의한 것이라고 하고 [물과 같은 불안정한 것이 근거라면] 소멸하여 역시 변이는 증대하지 않을 것이다. 그런데 [마음의] 본성이란 그와 같은 것은 아니다.

수행에 의해서 생긴 자비 등은 마음에 본연적으로 전개한다. 마치 불 등에서 나무나 수은·합금 등과 같이.49)

자신의 종자에서 초래되는 자비는 마찬가지로 자신의 종자에서 초래되는 그것과 대립하는 [혐오 등의] 것에 의해 방해되지 않는 한 마음의 상속에서 절대적인 본성에 이르는 것이다.52)

이 마음은 본성적으로 청정한 것이다. [아견에 의한 과실의] 더러움은 밖에서 온 것이다. 이미 이전에 [번뇌를 생기힌] 효력이 없는 것이 어떻게 해서 그 [수행] 이후에 그 [도의] 본성이 되고 있는 [마음에] 장애를 생기게 하는 효력이 있을까?53)



3-3-6. 신과 세계(인간)의 관계

근원적이며 탁월하게 실재적인 초월적 창조자, 즉 그의 명령으로 세계가 존재하게 되고 그가 강요하는 의지에 그 세계가 복종하는 그런 초월적 창조자라는 관념이 된 것은 기독교와 이슬람교의 역사에 비극을 야기 시켜 온 오류54라고 화이트헤드는 진단한다. 이러한 신은 ‘현실적 존재가 없으면 근거도 없다.’는 존재론적 원리, ‘있는 것의 본성에는 모든 생성을 위한 가능성이 속해 있다.’는 상대성 원리, ‘현실적 존재의 있음은 그 생성에 의해 구성된다.’는 과정의 원리들의 붕괴를 막기 위해 소환한, 형이상학적 원리들로부터의 예외자로서 취급되는 존재이다. 하지만 화이트헤드는 신을 형이상학적 원리들의 붕괴를 막기 위한 예외자가 아니라 오히려 그 원리들의 예증사례라고 간주하기 때문에 그 중요성에서 등급이 있고 기능에서 차이가 있지만, 텅 빈 공간에 존재하는 한 가닥의 하찮은 현존도 현실적 존재이듯이, 신도 현실적 존재의 하나라고 선언했던 것이다.

신은 항구적이고 세계는 유동적이라고 말하는 것은, 세계는 항구적이고 신은 유동적이라고 말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참이다. 신은 일자이고 세계는 다자라고 말하는 것은, 세계는 일자이고 신은 다자라고 말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참이다. 세계와 비교할 때 신이 탁월하게 현실적이라고 말하는 것은, 신과 비교할 때 세계가 탁월하게 현실적이라고 말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참이다. 세계가 신에 내재한다고 말하는 것은 신이 세계에 내재한다고 말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참이다.

신은 항구적이고 세계는 유동적 = 세계는 항구적이고 신은 유동적

신은 일자이고 세계는 다자 = 세계는 일자이고 신은 다자

세계와 비교할 때 신이 탁월하게 현실적이라고 말하는 것
=신과 비교할 때 세계가 탁월하게 현실적이라고 말하는 것

세계가 신에 내재한다고 말하는 것=신이 세계에 내재한다고 말하는 것

강사소개

부산대 철학과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하였다. 전공은 인도불교철학이며 구체적으로는 7세기 인도불교철학의 집대성자인 다르마키르티의 불교인식 논리학이다. 현재는 <다르마키르티사상연구소>를 설립하여 '다르마키르티'와 서양의 유기체 철학자 'A.N.화이트헤드', 언어분석철학자 '비트겐슈타인', 한국의 최대의 철학자인 '원효'사상을 연구하고 있다. 최근에 나온 책으로는 『유마경』(메타노이아), 『대승기신론』(문장21), 『깨달음과 자유』(메타노이아), 『아포하-불교 유명론과 인간의 인식』(그린비), 『인식론평석-지각론』(그린비), 『인도철학강의』(AK), 『불교란 무엇인가』(산지니), 『삼가구감(三家龜鑑)』(메타노이아) 등이 있다.

니체와 불교의 치유적 사유

김정현(원광대 철학과)

니체와 불교에서 고통에서 벗어나는 길, 치유와 행복을 찾아가기

니체: 불교는 역사적 실증적 종교이며, '죄에 대한 싸움'을 말하지 않고 현실을 인정하면서 '고통에 대한 싸움'을 말하며, '선과 악의 저편에 서 있는 종교'(니체, 『안티크리스트』, 236쪽[20번]: 책세상판 니체전집 인용)

부처의 가르침은 “우리가 어떻게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는가”하는 정신적 섭생. 복수, 혐오, 원한 감정을 경계하고 평온과 명랑하게 하는 생각을 가질 것을 가르침.

세계와 인간의 고통을 극복하고자 하는 불교와 니체의 치유적 언어는 음 다섯 가지로 정리.

1) 자기를 찾아야 한다

○ 니체 사상의 핵심: “너는 너 자신이 되어야 한다”(Du sollst der werden, der du bist)(니체, 『차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 383쪽; 니체, 『즐거운 학문』, 250쪽[270번])

‘자기 찾기’의 문제와 자신의 삶을 긍정하는 ‘운명애(amor fati)’ 사상은 하나의 개념틀.

▷ 자기 긍정:

삶을 부정하는 자의 일곱 가지 유형: ‘자기 학대를 하는 자’, ‘피로와 체념 등 영혼의 결핵에 걸려 있는 자’, ‘삶이 고통이라고 말하며 고통스럽게 사는 자’, ‘감각을 부정하는 자’, ‘출산/생식 등 생명의 과정을 부정하는 자’, ‘자신의 모든 것을 버리며 타인에게서 연민을 구하는 자’, ‘힘든 노동으로 도피하는 자’ - ‘죽음의 설교자’라고 비판. 진정한 자기 찾기란 자신의 삶(운명)에 대한 긍정과 사랑에서 출발. 니체는 “인간의 위대함에 대한 나의 형식은 운명애이다”(F. Nietzsche, Eh, Warum ich so klug bin 10, KSA 6, 297쪽)

니체의 자기 긍정이나 운명애는 자신에 대한 사랑을 배우며 실천하는데 있음. “[그렇다고] 허약한 자나 병자의 방식으로 자기 자신을 사랑해서는 안 된다. [...] 나의 가르침은, 사람들은 자기 자신을 건전하며 건강한 사랑으로써 사랑하는 법을 배워야 한다는 것이다. [...] 그것은 오히려 모든 기술 가운데서 가장 섬세하고 교묘하며, 궁극적인, 그리고 가장 큰 인내를 요구하는 기술이다.”(니체, 『차라투스트라』, 314쪽)

▷ 자기 극복:

자신의 지하실에 있는 ‘들개’나 ‘들짐승’, ‘내면의 짐승’과 싸워야 하며, 이 투쟁의 과정에서 우리 내면의 짐승(동물성)이 ‘새’나 ‘사랑스럽게 노래 부르며 춤추는 여인’이 되도록 변화시켜야 함.(『차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

○ 불교: 자기를 극복하고 이기는 것은 수행의 한 과정.

▷ 붓다: “전쟁에서 백만이나 되는 대군을 이기는 것보다 하나의 자신을 이기는 자야말로 참으로 전쟁의 승리자이다.”(『법구경-담마파다』, 『법구의석』, 전재성 역주, 한국바알리성전협회, 2016, 412쪽) 자기와 싸우며 스스로를 이기기

위해서는 올바른 마음으로 자신을 대하는 법을 배워야 하며, 증오, 미움, 원한, 분노 등 부정적인 마음에서 벗어나야 함. “적이 적을 대하고 원적이 원적에게 대하는 것보다 잘못 지향된 마음이 자신을 대하는 것은 더욱 나쁘다.”(같은 책, 『마음의 품』 11, 89쪽)

올바른 마음을 갖는 것: 자애, 선함, 보시, 진실함. “분노를 여윌로 분노를 이기고, 착함으로 악함을 이겨야 한다. 보시로 인색을 이기고, 진실로 거짓을 이겨야 한다.”(같은 책, 『분노의 품』 3, 557쪽)

법구경의 언어는 니체에게서 변주:

『이 사람을 보라』(*Ecce homo*): “결코 이 세상에서 원한으로 원한은 풀리지 않는다. 원한의 여윌로 그치나니 이것은 오래된 진리이다”(같은 책, 『쌍의 품』 4, 76쪽; F. Nietzsche, AC 20, KSA 6, 187쪽; F. Nietzsche, Eh, KSA 6, 273쪽)는 『법구경』의 문장을 그대로 인용. 니체에게 고통스러운 삶을 극복하기 위한 길은 이러한 복수나 원한 감정과 같은 부정적인 감정이나 노예적 수동적 삶의 태도에서 벗어나는데 있음.

『차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의 제2부 「타란툴라에 대하여」: 상처받는 자만심, 억제된 시샘, 자만과 질투, 남을 징벌하려는 충동(공격욕), 열등감, 과시욕, 자화자찬 등은 독거미 ‘타란툴라’, 자신의 삶을 긍정하고 자신의 내면과 대면하며 자기 극복을 해 나갈 때 우리는 자신의 실존적 과제를 깨달으며 자기 자신을 찾아갈 수 있음.

2) 독립적인 삶을 살아라: “무소의 뿔처럼 홀로 가라”

○ 니체:

▷ 칼 폰 게르스도르프(Carl von Gersdorff)에게 보낸 편지(1875년 12월 13일, 바젤)

“내가 일종의 점차 커지는 갈증으로 지난 두 달 동안 인도를 살펴보았을 때, 내가 이러한 인도 잠언에 빠질 수밖에 없다는 네 우정의 아름다운 본능에 [...] 나는 실로 놀라워한다. 나는 슈마이츠너(Schmeitzner)의 친구인 비데만(Widemann)씨에게서 불교도들의 성스러운 경전인 《수타 니파타》(*Sutta Nipāta*)의 영역본을 빌려 보았다. 수타니파타의 마지막 맺는 말 가운데 하나, 즉 “무소의 뿔처럼 홀로 가라”를 나는 이미 일상에서 잡고 있었다. 삶이 무가치하고 모든 목적이 미망이라는 신념이 내게 강하게 밀려왔다. 특히 내가 아파 누워있었을 때 그랬다. 그래서 나는 유대적-그리스도교적 어투가 섞이지 않는 채 그것에 대해 무언가를 더 듣고자 했다.”

(Friedrich Nietzsche, *Sämtliche Briefe Kritische Studienausgabe in 8 Bänden*, Bd.5, 128-129쪽)

이 편지의 마지막 문장을 “무소의 뿔처럼 홀로 가라”(einsam wandeln wie das Rhinoceros)로 끝내며 니체는 자신의 이름을 서명함. 자신의 일상뿐만 아니라 몸이 아팠을 때 니체를 휘잡고 있던 것이 바로 이 문장. 이는 다른 사람을 배격하거나 인간관계를 끊고 홀로 살아가라는 부정적 의미의 고독을 강조하는 말이 아님.

▷ 『아침놀』(*Morgenröte*): 무소의 뿔처럼 홀로 걸어가는 현인의 발걸음에는 삶의 밝음과 가벼움이 담겨 있음. “불교인의 노래에 의하면 ‘무소의 뿔처럼 혼자 걷는’ 현인이 모든 것을 분쇄하며 내딛는 무거운 발걸음에도 때로는 화해적이고 부드러운 인정의 징표가 필요하다.”(니체, 『아침놀』, 358쪽(469번))

○ 붓다: 삶의 고통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수행의 무거운 발걸음을 멈추지 말고 타인에게 의지하지 말고 자신의 길을 걸어가라고 함.

▷ 붓다가 수제자 다문제일(多聞第一) 아난다(Ānanda)에게 남긴 유언(『대반열반경』(大般涅槃經)) “아난다여, 자신을 섬으로 삼고 자신의 피난처로 삼지 다른 것을 피난처로 삼지 말고, 가르침을 섬으로 삼고 가르침을 피난처로 삼지 다

른 것을 피난처로 삼지 말라.”(『디가니까야』, 전재성 옮김, 한국빠알리성전협회, 2016, 773쪽, 1110쪽, 1159쪽)
붓다의 마지막 유훈: “모든 형성된 것은 부셔지고야 마는 것이니, 방일하지 말고 정진하라”(같은 책, 801쪽).

▷ 『숫타니파타』

무소의 뿔처럼 홀로 가라
소리에 놀라지 않는 사자처럼,
그물에 걸리지 않는 바람처럼,
더러운 물에 물들지 않는 연꽃처럼
무소의 뿔처럼 혼자 가라.

(『숫타니파타 - 붓다의 말씀』, 전재성 역주, 한국빠알리성전협회, 2015, 124, 207쪽)

이빨이 역세 못 짐승의 왕이 된
사자가 못 짐승을 제압하고 승리하듯이,
외딴 곳에 잠자리나 앉을 자리를 마련하고,
무소의 뿔처럼 혼자서 가라.(같은 책, 124쪽)

무소의 뿔처럼 홀로 가는 것은 정신적 의존성에서 벗어나, 삶의 고통의 원인이 되는 탐욕(貪)과 성냄(嗔), 어리석음(癡)을 버리고, 자애와 연민, 기쁨과 평정을 올바르게 실천해 나가는 것을 의미.

○ 니체:

▷ “세상에는 너 이외에는 아무도 갈 수 없는 유일한 길이 있다. 그 길이 어디로 이어지는가? 묻지 말고 그저 걸어 가라.”(Friedrich Nietzsche, *Unzeitgemäße Betrachtungen III*, Schopenhauer als Erzieher 1, KSA I, 340쪽)

▷ 『차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 제1부 마지막 장 「베푸는 덕에 대하여」: 차라투스트라는 ‘얼룩소’라는 도시를 떠남. 제자들이 작별 선물로 지팡이 하나를 건넨. 금으로 된 지팡이의 손잡이에는 ‘태양을 휘감고 있는 뱀의 모습’이 새겨져 있는데, 금은 최고의 ‘베푸는 덕’(eine schenkende Tugend)을 상징. 스승이 최고 가르침을 받은 후 각자 자신의 길을 가야함.

자신이 자신의 삶의 주인이 되기 위해서는 진실되고 고독한 홀로의 발걸음을 걸을 수 있어야 함. 무소의 뿔처럼 홀로 걸어간다는 것은 그물에 걸리지 않는 바람같이 자유인이 되기 위한 여정.

3) 하나의 관점에 집착하지 말라

우리는 각자 자신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며 살아가지만, 이 눈은 각자의 생각과 마음을 이루며 편견과 독선을 야기하기도 하고 사물의 이치를 파악하며 진리를 추구하는 인식의 도구가 되기도 함.

○ 『금강경』: 붓다가 인간의 눈을 ‘육안(肉眼), ‘천안(天眼), ‘혜안(慧眼), ‘법안(法眼), ‘불안(佛眼) 등 다섯 가지로 말함. 인식의 기관으로서의 눈이 단순히 육체의 눈으로 감각적 세계만을 인식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금강경 역해』, 각목스님, 불광출판사, 2001, 332-333쪽)

○ 니체사상에서 ‘독수리’ 비유:

『차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 차라투스트라가 산으로 들어가 10년 동안 고행한 후 어느 날 아침에 하늘을 바

라보는데, 독수리가 뱀을 친구처럼 목에 감고 하늘에서 원을 그리며 날고 있는 모습. '독수리'는 니체의 인식론, 즉 관점주의(Perspektivismus) 상징. 니체는 1883년 6월에 스위스 실즈-마리아(Sils-Maria)에 머무르며 『차라투스트라』 제2부를 10일 동안 씀. 그때 거주했던 집(Nietzsche-Haus)의 앞에 독수리 조각상. 독수리 = 하늘을 자유롭게 비상하며 세계를 바라본다는 것, 즉 정신의 높은 시선을 확보 = 세계의 넓이를 이해하는 것 = 인생을 이해할 수 있는 영혼의 깊이를 얻는 길. '정신의 높이'와 '세계의 넓이'와 '영혼의 깊이'는 비례. "독수리의 눈으로 심연을 바라보는 자, 독수리의 발톱으로 심연을 잡고 있는 자. 그런 자가 용기 있는 자다"(니체, 『차라투스트라』, 464쪽).

극복인(초인, Übermensch)과 같은 자유로운 정신이 되기 위해 요청되는 것은 인간 위에 걸쳐있는 먹구름에서 내리치는 '번개'를 맞는 일. 이는 진(眞)과 위(僞), 선과 악, 미와 추 등 이항대립적 가치평가의 구도 위에서 세계와 인간을 이해하는 인식의 한계를 넘어서 인간 존재의 의미를 터득하고 관계적 세계의 이치를 파악하는 것.

○ 부처 수행 및 설법처 인도 라즈기르(왕사성王舍城)의 영취산(靈鷲山, Gridhrakūtaparvata)은 독수리와 밀접한 연관.¹⁾ 부처의 대도(大道)에 따라 수행하면 모든 사람이 깨달음을 얻을 수 있다는 대승불교적 내용이 설법된 곳도 독수리 바위 옆 정상(頂)의 <여래향실>(Gridhrakūta)에서였음.

▷ 붓다의 '뗏목'에 대한 방편설의 비유. "어떤 것에 집착하여 다른 것은 저열하다고 본다면, 착하고 건전한 님들은 그것을 속박이라고 합니다."(『숫타니파타 - 붓다의 말씀』, Stn 798, 591쪽) 강을 건너기 위해서는 뗏목이 필요하지만 강을 건너게 되면 그것을 버려야 함(『맛지마니까야』, 제1권, 전재성 역주, 한국빠알리성전협회, 2002, 447-449쪽; 『금강경 역해』, 105-108쪽)

『금강(반야바라밀)경』(Vajraccedika Prajñāpāramitā Sūtra): 자아, 영혼, 세계의 실체현상, 형이상학 등 모든 것에 대한 집착과 생각의 이미지인 상(相/想, saṃjñā)에 대한 고집에서 벗어나야 함. "마땅히 머물고 집착하는 바가 없는 상태에 이르러야 하며, 그러한 상태에서 보시(사랑)의 실천을 행해야 한다(應無所住, 行於布施)" '금강'을 뜻하는 '와즈라'(Vajra)는 벼락의 섬광과 함께 모든 것을 자르고 부숴버리는 최강의 것. 벼락은 집착과 편견, 아집과 독선을 깨어 부수는 진리의 햄머.

▷ 니체: 사물의 이치를 터득하기 위해서는 낡은 서판을 부숴버려야 함. 낡은 서판이란 인간이 만들어 놓은 기존의 가치평가나 그 목록, 규범이나 선악의 구분을 뜻함. 선과 악, 나와 세계, 주체와 대상, 미와 추, 삶과 죽음 등 삶의 사실을 이항대립적으로 설정하고 사유하는 것, 즉 낡은 서판에 기록된 전통적 방식에 따라 하나의 관점에 집착하여 사물을 바라보는 사유방식을 부술 때 우리에게 세계와 삶의 이치를 이해할 수 있는 새로운 시야가 열림.

▷ 불교에서 바른 견해(正見), 바른 생각(正思)의 중요성을 강조. 니체는 사물의 이치를 올바르게 파악하기 위해서는 그것을 바라보는 깨끗한 눈길이나 맑은 시선이 필요. "벗들이여, 맑은 시선을 나의 기쁨의 샘 속에 던져보아라! 어찌 그 샘물이 그 때문에 탁해지겠는가! 샘은 그의 깨끗한 눈길로 너희를 향해 마주 웃어주리라."(니체, 『차라투스트라』,

1) 붓다가 수행하시며 설법하신 곳 가운데 인도 라즈기르(王舍城)의 영취산(靈鷲山)이 있는데, 이 산의 정상에 독수리 바위가 있다. 그 모습이 독수리를 닮았다고 해서 붙여진 명칭인 듯하다. 독수리 바위 옆 정상에 앉아 계시던 곳을 <여래향실>이라고 부르는데, 이곳에서 부처가 깨달음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을 설법하신 내용이 '진실한 가르침의 연꽃'이라는 뜻을 지닌 『법화경』이다. 『법화경』은 '일체중생 실유불성(一切衆生 悉有佛性)'이 설법되며 이후 중국에서 대승불교가 형성되는 연원이 되는 경전이다. 붓다는 네란자라 강가의 조로아스터교를 믿던 가사파(가섭) 삼형제를 교화하여 1,000여명의 제자들을 불교로 출가시켰는데, 여기에서 설법을 들었던 제자들은 바로 그때 출가한 제자들이었던 것 같다. 불교 최초의 승단인 죽림정사가 세워진 것도 이때이며, 붓다께서 인고와 극기의 수행자로 인정한 두타제일(頭陀第一) 마하가사파(대가섭大迦葉) 존자에게 연꽃을 보여주었을 때 이심전심의 마음법을 부촉한 것도, 즉 "영산회상(靈山會上) 염화미소(拈花微笑) 이심전심(以心傳心)"이라는 말이 전해진 것도 바로 이곳에서였다. 이곳에는 아난존자가 거주한 아난다동굴, 사리를 존자가 수행한 사리불 동굴이 있고, 그 주변에 불교 최초의 사원인 죽림정사, 최초의 경전을 결집했던 칠엽굴, 부처님을 후원했던 빔비사리왕이 아들의 반란으로 간혀 죽은 감옥터, 친척인 데와닷타(devadatta)가 붓다를 시해할 목적으로 산위에서 바위를 굴렀을 때 돌 파편에 맞아 다리를 치료했던 (자바카 의사의) 병원터, 자바카 의사의 망고나무동산 등이 있다.

159쪽) 사물이나 세계에 맑은 시선을 던질 때 그것은 우리에게 있는 그대로의 세계를 보여줌.

4) 여기, 이 순간이 중요하다

▷고대 로마 시인 호라티우스(Quintus Horatius Flaccus): ‘현재를 잡아라’(Carpe diem).

○ 붓다의 설법지 캄마사담마: 연기(緣起)에 대한 내용을 다룬 『대인연경』과 불교 수행법 『대념처경』이 설법, 특히 후자는 현재에 집중하는 명상방법을 제시. 불교의 위빳사나 명상은 ‘몸의 관찰’, ‘느낌의 관찰’, ‘마음의 관찰’, ‘법의 관찰’ 등 네 가지 마음챙김(sati)을 주로 하는 통찰지의 수행. 이는 현재의 모든 행동이나 몸의 움직임, 마음, 생각의 움직임을 있는 그대로 알아채는 수행.

▷ 『맛지마니카야』(Majjhima Nikāya)의 ‘독화살 비유’: 몸과 마음의 느낌과 행동의 준칙에 대한 성찰 제시. 말롱 끼야뵈따(Malunkyaputta)가 우주는 영원한가, 영혼과 육체는 동일한 것인가, 여래는 사후에 존재하는가와 같은 형이상학적 질문을 품었을 때 붓다가 그에게 설법한 내용이 독화살 비유.(『맛지마니카야』 제3권, 전재성 역주, 한국바알리 성전협회, 2003, 71-72쪽) 독화살을 맞았을 때, 그것이 어디에서 날라 온 것인지, 화살을 쏜 사람이 누구인지, 화살에 묻는 독이 어떤 종류의 것인지 등에 대한 앞보다 더욱 중요한 것은 현재 내가 독화살을 맞았다는 사실과 의사에게 가서 이것을 뽑고 치료를 받아야 한다는 사실. 논리적 지식보다 중요한 것은 현재의 실존적 나의 상태나 고통에 대한 자각과 그것을 벗어나려는 의지와 노력임 불교에서는 지나가버린 과거에 집착하거나 아직 오지 않은 미래를 앞당겨 걱정하는데서 삶의 불안과 고통이 생겨난다고 보며 현재에 집중하는 마음챙김의 명상을 제시.

○ 니체: 우리가 살아가는 대지의 삶이자 현재의 삶 강조. 디오니소스, 대지, 현실, 몸 등 여러 언어로 표현되는 현재의 삶은 영원회귀사상에 의해 드러남. 이는 현재의 순간이 곧 영원의 순간이며 그러한 때 순간이 존재의 중심이 시작되는 지점. 매 순간 존재는 시작하며 그 매 순간에 존재의 중심이 있다는 그의 사상은 내가 서 있는 현재가 곧 영원의 순간이기에 그 현재의 순간에 집중해 현실을 긍정하고 충실히 살아야 한다는 것을 의미. 행복이란 거대한 명예나 보상, 소유물에 의해 확인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살고 있는 현재의 매 순간, 아주 사소한 것의 의미를 자각하는 데 있음. “더없이 적은 것, 더없이 조용한 것, 더없이 가벼운 것, 도마뱀이 바스락거리는 소리, 숨결 하나, 획 하는 소리, 눈길 하나. 이처럼 작은 것이 최상의 행복을 만들어낸다.”(니체, 『차라투스트라』, 446쪽) 우리 자신의 사소한 습관이 중요. “자신의 영혼을 치유하려는 사람 역시 가장 사소한 습관의 변화에 대해서도 깊이 생각해야만 한다.”(F. Nietzsche, *Morgenröthe* 462, KSA 3, 278쪽) 니체는 불교처럼 호흡 명상이나 위빠사나적 마음챙김을 제시하는 것은 아니지만, 매 순간 현실에서 일어나는 모든 것 속에서 우주적 생명에 대한 현재적 자각을 할 것을 말함. 여기, 이 순간의 현재에 집중할 때 나의 삶은 깨어있게 됨.

5) 사자처럼 자유로운 존재가 되자

○ 불교: 붓다의 모습을 코끼리뿐만 아니라 사자로도 비유. 붓다가 마가다국의 도시 라자가하(Rājagaha, 현재 지명으로 라즈기르)로 갔을 때 빔비사라(Bimbisara)왕이 궁전 위에서 건장하고 청정하며 우아한 걸음걸이를 걷는 붓다를 보고 수행승이 어디로 가는지를 알아보라고 사람을 보냈는데, 이때 신하들이 붓다의 모습을 사자와 같다고 전함. “대왕이시여, 그 수행승은 뾰두바 산 앞쪽에 있는 굴속에 호랑이나 황소처럼, 그리고 사자처럼 앉아 있습니다.”(『숫다니파타』, Stn. 416, 342쪽) 붓다를 모든 것을 지배하는 최고 강자인 사자로 비유. 사자란 모든 집착에서 해방되어 두려움도 불안도 번뇌도 벗어난 영원한 자유인을 뜻함. “당신은 집착의 대상을 뛰어넘고, 모든 번뇌를 부수어 버렸습니다. 두려움을 버리고, 공포를 여의어, 집착할 만한 것이 없는 사자이십니다.”(『숫다니파타』, Stn. 572, 448쪽) 불교에서 부

처님의 말씀이나 설법을 '사자후'(獅子吼)라고 칭함. 조용하며 차분하고 맑은 설법에서 사자의 포효와 같은 충격적 전율을 느끼는 내용을 전해 주기 때문.(『디가니까야』, 제1품 계행다발의 품의 8장이 '위대한 사자후의 경').

○ 『차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의 머리말은 독수리와 뱀의 상징에서 시작해, 독수리와 비둘기, 사자의 비유로 끝남. 니체는 지혜의 암사자(사나운 지혜)가 적막한 산(고독)에서 잉태해 험준한 바위 위에 어린아이를 낳는다고 표현.(니체, 『차라투스트라』, 134쪽) '어린아이'는 삶의 의미를 체화하고 자기 극복을 하며 자기 자신을 찾는 자유정신으로서의 극복인. 생성소멸하는 세계 속에서 허무주의를 극복하고 자신의 삶의 의미를 찾기 위해서는 세속적 삶의 죽음이 있어야 하며 정신적으로 다시 태어나는 산고를 겪어야 함. "모든 불변하는 것 - 그것은 다만 비유에 지나지 않는다. [...] 창조, 그것은 고뇌로부터 크게 벗어나는 것이며 삶을 가볍게 해주는 어떤 것이다. 그러나 창조하는 자가 있기 위해서는 심지어 고뇌도 필요하며 많은 변신이 있어야 한다./ 그대 창조자들여, 그대의 삶 속에는 수많은 쓰라린 죽음이 있어야만 한다. 새로이 태어나는 아이가 되기 위해서 창조자는 스스로 산모가 되어 산고를 겪어야 한다."(F. Nietzsche, Za, II 2, KSA 4, 110-111쪽) 정신적 산고와 탄생의 과정은 다른 아닌 자기 자신을 새롭게 만드는 창조의 과정.

니체는 감옥에 갇혀 고통 받는 일체의 감정에서 해방되어야 진정한 삶의 기쁨을 누릴 수 있다고 봄. "사물의 이치를 터득하는 것, 그것은 사자의 의욕을 가지고 있는 자에게는 기쁨이 된다!"(니체, 『차라투스트라』, 355쪽) "인간이 존재한 이후, 인간이 기쁨을 누린 일이 너무나도 적었다."(같은 책, 142쪽) 삶의 즐거움을 누리며 생명을 느끼는 일은 마치 황금별(차라투스트라)을 품고 무거운 중력을 거슬러 존재의 춤을 경쾌하게 추는 것.

○ 불교의 가르침: 우울하고 음산한 금욕주의적 삶의 부정을 향하는 것이 아니라 존재를 경쾌하게 하는 삶의 긍정에 있음. 코살라(Kosala) 왕과 붓다의 대화는 불교가 만드는 삶의 기쁨에 대한 매우 흥미로운 일화를 제시. 코살라국의 왕은 붓다에게 "여의고 거칠고 창백하고 노랗게 맥없이 보이고 혈관이 드러난" 것처럼 보이는 다른 종교의 제자들과는 달리 붓다의 제자들은 "미소 짓고 즐거워하고 참으로 기뻐하고 감관이 청정하며 걱정이 없으며 평화롭고 사슴과 같은 마음을 지니고" 살고 있다고 말하며, 이것이 여래의 가르침에서 기인하는 듯 보인다고 말함.(월풀라 라홀라, 『붓다의 가르침과 팔정도』, 전재성 역저, 한국빠알리성전협회, 2009, 65-66쪽) 불교가 보여준 삶의 모습은 음침한 금욕주의나 허무주의적 은둔주의가 아니라 현실에서 평화롭고 즐거운 마음을 실천하는 것.

○ 『차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의 「조짐」(Das Zeichen): 일체의 고통으로부터 벗어나 생명의 깨달음을 얻는 최고의 기쁨과 행복의 정점에 대한 이야기. 차라투스트라가 아침에 동굴 밖으로 나와 독수리의 울음소리를 들었을 때, 무수히 많은 새(비둘기)들이 떼를 지어 몰려들어왔고, 머리 위로는 사랑의 구름이 덮쳐옴. 이때 차라투스트라는 커다란 돌 위에 앉아 자신의 손을 무성하고 따뜻한 머리 갈기 속으로 넣자 사자의 부드럽고 긴 포효 소리(사자후獅子吼)를 들음. 이 순간 마음이 변화하며 하나의 조짐(얼굴이 청동 빛으로 변함)이 일어남. '위대한 정오'가 솟아오르고, 그는 아침 태양처럼 불타는 모습으로 동굴을 떠남.(니체, 『차라투스트라』, 525-529쪽) 불교적 해탈, 즉 세계의 이치에 대한 깨달음이 열리는 순간을 묘사. 이 깨달음(해탈)의 순간에 삶의 짓누르는 고통에서 해방되고 삶을 긍정하는 생명 정점의 자각이 열리며 자신의 주인으로 태어나는 존재실현 묘사. 사자의 웃음은 삶의 지혜가 체화되어 사물의 이치를 깨닫고 존재의 충일감을 느끼는 행복을 뜻함. 이는 감각이나 욕구의 충족 혹은 심리적 만족감에서 오는 작은 행복이 아니라 자신의 존재실현에서 오는 참된 행복.

▷ 오늘날 니체와 불교사상에서 찾을 수 있는 치유적 사유는 자기 극복, 독립성, 집착으로부터의 해방, '지금, 여기'의 긍정, 자유정신, 생명 의식, 전인성의 실현/존재 충일감의 행복.

강사소개

고려대학교 철학과와 같은 학교 대학원을 졸업하고, 독일 뷔르츠부르크(Wurzburg)대학에서 철학, 종교학, 사회학을 공부하고 철학박사 학위를 취득했다. 독일 베를린 훔볼트대학 학술연구교수로 있었다. 세계표준판 니체전집 한국어본(전21권, 책세상)의 편집위원과 한국니체학회·범한철학회·대한철학회 회장을 역임했다. 원광대학교 중앙도서관장을 역임하고 현재 철학과 교수로, 한중관계연구원 원장과 동북아시아인문사회연구소 소장, HK+(인문한국)연구단 단장으로 활동하고 있다.

저서로 Nietzsches Sozialphilosophie(K&N), 《니체의 몸 철학》, 《니체, 생명과 치유의 철학》, 《철학과 마음의 치유》, 《소진시대의 철학》 외 다수가 있고, 옮긴 책으로 알프레트 쉘프의 《프로이트와 현대철학》, 니체의 《선악의 저편·도덕의 계보》와 《유고(1884년 가을~1885년 가을)》, 야스퍼스의 《기술시대의 의사》, 루 안드레아스 살로메의 《살로메, 니체를 말하다》 외 다수가 있다. 세계 저명 학술지 《니체 슈투디엔(Nietzsche Studien)》, 《니체 포르슁(Nietzsche Forschung)》, 《정신분석(Psychoanalyse)》을 비롯해 국내외 학술지에 다수의 논문을 발표했다.

내려놓기의 현상학

김영필(전 대구교대 연구교수)

1. 나는 욕망한다. 고로 존재한다

“신은 수동에는 관여하지 않으며 어떠한 기쁨이나 슬픔의 정서에 의해서도 작용받지 않는다. 신은 아무도 사랑하지 않으며 아무도 미워하지 않는다.” (스피노자, 『에티카』, 5부 정리 17). 반야암의 단풍나무도 구름도 누군가를 사랑하거나 미워하지 않는다. 깨달은 자는 사랑하지도 미워하지도 않는다. 사랑도 미움도 정념이다. 인간은 왜 정념에 시달리는가? 동물도 충동은 있다. 하지만 욕망은 없다. 인간만이 욕망의 존재이다. 욕망이란 의식을 동반하는 충동이다.(『에티카』, 3부 절리 9, 주석). 욕망은 인간의 본질이다. 그 욕망을 뿌리로 수많은 정서가 가지를 친다. 마음은 몸의 변용이다. 마음이 몸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 몸이 욕망을 잉태하고 욕망은 기쁨과 슬픔의 정서를 잉태한다. 우리의 수많은 정서는 이 욕망과 기쁨과 슬픔의 변조들이다. 사랑은 외부대상에 관한 관념이 동반하는 기쁨이고, 미움은 외부대상에 관한 관념이 동반하는 슬픔이다.(『에티카』, 191~192). 사랑은 나의 존재를 유지하는 데 이익이 되는 기쁨이고, 미움은 나의 존재를 유지하는 데 이익이 되지 않는 슬픔이다. 인간은 자신의 존재를 유지하려는 모든 정서는 수동적이다. 정념(passion)이다. 정념은 수동적(passive)이다. 몸을 통해 주어지는 것이다. 마음이 몸에 영향을 덜 받으면 받을수록 더 능동적이 된다. 반대로 마음이 몸에 영향을 더 받으면 받을수록 마음이 수동적으로 된다. 마음이 더 능동적이려면 몸의 영향을 덜 받아야 한다, 마음이 몸으로부터 자유로워져 스스로 스스로 작용하려면 욕망을 내려놓아야 한다. 욕망에 뿌리를 둔 사랑과 미움의 정서를 내려놓으면, 사랑하는 사람과 이별하고(愛別離) 미운 사람과 만나는(怨憎會) 것이 고(苦)는 아니다. 문제는 사랑도 미움도 내려놓는 것이다. 욕망을 에포케하는 것이다. 욕망을 괄호쳐 두는 것이다. 정확히는 욕망으로 판단 하는 것을 잠시 중단하는 것이다. 참 어렵다.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은 아니다. 얼마나 어려우면, 에드문트 후설은 개종(改宗)만큼 어렵다고 했을까? 세계를 대하는 나의 태도를 철저하게(radikal) 바꾸는 것이다. 가히 혁명적 전환이 요구된다. 태도의 변화가 아니라 변경이다. 물을 얼음으로 바꾸는 것이 아니라 썩덩어리로 바꾸는 것만큼 어려운 것이 태도변경이다. 어렵지만 가야 할 길이다. “모든 고귀한 것은 힘들 뿐만 아니라 드물다.”(『에티카』, 5부 마지막 문장). 빨간 안경을 쓰고 보는 세상과 노랑 안경을 쓰고 보는 세상은 다르다. 안경을 벗으면 세상이 있는 그대로 보인다. 욕망의 안경을 내려놓는 절차가 바로 에포케, 즉 판단중지이다.¹⁾

2. 내려놓기

욕망 내려놓기는 쉬운 것이 아니다. 다만 욕망의 본질을 아는 것이 욕망 내려놓기이다. 욕망의 본질을 직관하기 위해, 욕망에 대한 선입견을 내려놓아야 한다. 가장 서둘러 내려놓을 것은 바로 마음만 먹으면 욕망을 언제든지 압도할 수 있다는 착각이다. 욕망을 대하는 태도의 총체적(total) 변경이 필요하다. 욕망의 본질을 현상학적 통찰하고, 직관하는데 방해되는 선입견 내려놓기이다. 욕망의 본질에 대한 기존의 선입견을 철저한 부정하는 것이다. 부-정(否-定)은 그릇된 입장 정립하는 것을 내려놓는 것이다. 욕망 자체를 부인하는 것이 아니다. 욕망을 긍정하는 것이다. 그릇된 이론이나 가설들로 짜 맞추어진 배설물을 토해내는 생산적 자기 정화의 과정이다. 이 철저한 부정은 진리 자체를 잃는 것이 아니라, 단지 보다 높은 의미에서 모든 것을 얻기 위한 절차이다. ‘모든 것을 내려놓은 자만이 모든 것을 다 얻

1) 후설은 1920년대 Karl Neumann의 불경 번역서에 감탄하면서(admiringly) 관심을 보였었다(H. Spiegelberg, *The phenomenological movement*, 1982, 80면 참조). 우리는 스피겔버그가 알려 주는 이와 같은 전거를 토대로, 환원의 이념과 시간체함에 대한 분석 등의 생각이 무르익기 시작할 때, 후설은 불교적 수행에 깊은 관심을 가졌다고 추론할 수 있다.

을 수 있다.²⁾는 후설의 고백은 환원의 수행적 성격을 함의한다. 환원은 판단중지를 통해 세계를 잃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세계의 의미를 다시 얻기 위한 절차이다.³⁾ 환원은 단지 추상적인 일반적 의지만으로는⁴⁾ 가능하지 않고 총체적이고 온전한 인격적 변화와 인류에 부과된 가장 위대한 실존의 변화를 함의한다.⁵⁾

환원은 욕망의 본질을 직관하기 위한 절차이다. 세계를 전적으로 무효화하고 자아로 환원해 들어간 데카르트는 불가능한 것을 가능한 것으로 착각했다. 세계를 아무리 무효화하려 해도 세계는 여전히 존재한다. 데카르트는 욕망을 압도하고, 맑은 마음으로 돌아가는 방법적 회의를 실행한다. 하지만 이 환원은 마음(이성)에 대한 그릇된 편견에서 비롯된 것이다. 마음을 아무리 갖고 닦아도 욕망의 그림자는 여전하다. 마음을 닦으면 닦을수록 욕망의 실체는 더 빛난다. 인간이 몸을 가지고 있는 한, 욕망은 사라지지 않는다. 데카르트가 벗어던진 몸은 육체이다. 몸(Leib)과 육체(Körper)는 다르다. 몸은 마음과 분리될 수 없다. 몸을 육체로 생각하고, 육체는 마음을 둘러싸고 있는 외피와 같은 것으로 언제든지 외피를 벗을 수 있다고 착각했다. 하지만 마음은 몸의 변용이다. 몸이 마음의 또 다른 마음이다. 몸이 존재하는 한, 마음속의 욕망이 사라지지 않는다는 것을 깨닫는 것이 욕망의 본질에 대한 직관이고 깨달음이다.

환원, 즉 내려놓기는 어차피 욕망의 본질을 인식하기 위한 인위적 절차이다. 이 절차가 목적은 아니다. 깨달은 후 버려야 할 그물이다. 어차피 방법적 절차라면 철저히할수록 좋다. 가장 철저한 내려놓기는 너무나 당연하게 생각한 것부터 내려놓는 것이다. 너무나 당연하다고 생각한 근대 이성론자의 선입견을 내려놓는 것이다. 욕망은 헛된 것이고, 악한 것이고 이성에 의해 치료받아야 할 죄악과 같은 것이라는 선입견이다. 그래서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지 벗어던질 수 있다는 선입견부터 내려놓아야 한다. 그런데 이것이 어렵다. 오랫동안 너무나 당연한 것으로 여겨왔기 때문이다.

철저한 내려놓기는 우선 마음과 세계를 서로 분리한 선입견부터 내려놓아야 한다. 마음만 먹으면 세계를 등지고 앉을 수 있다는 생각을 지워야 한다. 우린 이미 세속적 자아이다. 생활세계 속에 살아온 주체이다. 생활-세계(life-world)는 결코 분리될 수 없다. 생활과 세계는 분리될 수 없어 하이픈 '-' 으로 연결한다. 삶의 지평이 바로 세계이다. 눈만 감으면 보이지 않는다고 세계가 없어지는 게 아니다. 하이데거의 말대로 우린 이미 '세계-내-존재'이다. 마음은 텅 빈 상자이고, 세계가 마치 그 안으로 들어오는 것처럼 착각해서는 안 된다. 이것이 마음과 세계를 분리하는 근대철학의 스캔들이다.

우선 세계의 존재 타당성을 괄호 쳐 두자. 절차적으로 마음보다는 세계의 존재가 더 불확실하다. 물론 세계의 존재를 무효화할 수는 없다. 다만 지금까지 세계의 존재를 마음과 분리된 객관적 실재라고 당연하게 생각한 것부터 내려놓자. 그런 후 나의 존재 타당성에 대한 믿음도 내려놓자. 마치 세계와 분리된 채 마음이 존재한다는 생각을 내려놓자. 데카르트도 여기까지는 이르렀다. 하지만 문턱에 머물렀다. 그는 마음을 하나의 실체로 규정하는 데서 마무리했다. 마음을 실체화하는 것은 '마음의 자연화'이고 '사물화'이다. 실체는 다른 것의 도움을 받지 않고서 스스로 존재하는 것이다. Sub-stance, 즉 모든 게 변해도 변하지 않고 남아 있는 기체(基體)이다. 마음이 실체화되는 것은 세계와 분리되는 것이다. 데카르트는 세계 역시 실체라 한다. 다만 마음은 생각하는 실체이고, 세계는 연장적(延長的) 실체이다. 실체는 하나의 사물이다. 마음은 Thinking Thing이고, 세계는 Extending Thing이다. 마음을 사물처럼 생각하는 심리주의적 편견이다.

데카르트가 머문 자아는 심리적 자아이다. 이것은 물리적 세계와 분리되어 있다. 이들 사이의 틈이 벌어지기 이전의 근원적인 자아로 더 들어 가 보자. 심리적 자아는 경험적 자아이다. 욕망적 자아이다. 이 욕망의 자아를 가능하게 하는 더 근원적인 자아로 들어 가 보자. 이 자아를 선행적 자아로 부른다. 경험에 앞서 열리는 자아이다. 욕망의 자아를 잉태하는 근원적인 분열이 발생하는 자아이다. 이 자아는 지속적으로 세계와 교류하는 자아이다. 철저한 환원을 통해 열린 자아의 모습은 세계와 엉클어져 있는 자아이다. 마음과 세계의 분리 이전에 세계와 부단하게 관계를 맺고 있는

2) 《제일철학 II》, 166면 참조.

3) 《성찰》, 39, 183면 참조.

4) 《위기》, 166면 참조.

5) 같은 책, 187면 참조.

자아이다. 이 관계를 맺고 있는 채널이 바로 지향성이다.

지향성(Intentionality)은 의식의 특징이다. 사물은 지향성이 없다. 의식만 무언가로 향한다. 의식은 무엇에 관한 의식이다. 나의 마음은 지속적으로 대상으로 향한다. 대상의 현존과는 관계없이 자유로이 향한다. 하지만 마음이 향하기 이전에 대상이 마음의 지향을 촉발한다. 의식은 대상에 의해 의식적이게 된다. 일깨워진다. 마음은 대상과 분리된 채 홀로 앉아 있을 수 없다. 부단히 대상으로 향하고 동시에 대상이 촉발하면 마음이 거기로 향한다. 마음은 수동적이다. 대상이 촉발하는 한에서 의식의 지향이 일어난다. 사랑도 미움도 그리움도 아쉬움도 지각도 상상도 항상 대상에 관한 것이다. 사랑은 사랑하는 마음을 생기게 하는 사랑스러운 대상에 의해 촉발된다. 모든 욕망은 마음이 지향하는 대상으로부터 촉발된 것이다. 내 마음이 대상의 포로인 셈이다.

3. 방하(放下)

욕망으로부터 자유로워지는 길은 없는가? 대상으로 향한 마음의 지향을 끊을 수는 없다. 지향은 단순한 지향(指向)이 아니다. 목적을 가지고 대상으로 향하는 지향(志向)이다. 그 목적은 대상의 본질을 구성하는 것이다. 대상의 본질을 구성하려는 의식의 지향이 살아 있는 한, 마음의 고(苦)에서 해방될 수는 없다. 지향의 주체와 지향된 대상이 모두 사라지지 않는 한, 원증회(怨憎會)와 애별리(愛別離)의 고(苦)는 사라질 수 없다. 대상을 나에게 대한 의미로 구성하려는 욕망하는 주체의 지향이다. 하지만 존재는 나에게 대한 의미로 구성되기를 거부한다. 지향하면 할수록 대상은 나의 욕망을 더 부추긴다. 지향 자체를 내려놓아야 한다. 내려놓기는 하이데거의 Gelassenheit로 이어진다. 지향이 있는 한, 지향된 대상으로 분열된다. 하이데거가 보기에 스승 후설의 지향성은 주-객분열의 씨앗이다. 하이데거의 Gelassenheit의 번역은 내맡김, 방념, 초연 등이다. 어떻게 번역이 되든 독일어 사역동사인 lassen에서 나온 명사이다. 생각 내려놓기이다. 불교 용어로는 방하(放下)가 적절한 번역인 것 같다. 집착을 일으키는 의식의 모든 지향을 내려놓기이다.

욕망의 그물에서 단번에 벗어날 수 없다면, 지속적으로 욕망을 내려놓는 수행을 할 수 있을 뿐이다. 비록 그 길을 가는 것이 어렵지만, 어려운 만큼 고귀한 것이다. 스피노자는 이 어려운 길을 '신에 대한 지적 사랑'으로 말한다. 욕망도 희망도 그리움도 아쉬움도 오만도 호기심도 사랑도 미움도 인간의 욕망에 의한 것임을 깨닫는 길은 바로 이 모든 욕망의 고리에서 벗어나 있는 신을 인식하는 길이다. 인식이 바로 깨달음이다. 모든 욕망은 의식이 대상으로 관심을 돌리는 순간에 잉태된다는 것을 깨닫는 것이다. 단 한 번에 관심을 끊을 수 없는 한, 욕망 내려놓기는 우리가 가야 할 멀고도 험난한 길이다. 하지만 그 길은 우리에게 마음의 평안과 자유를 선사한다. 우리 주어진 이 길을 부단히 그리고 성실하게 가야 한다. 가다가 길을 모르면 길에게 길을 물으면서.....

단풍 드는 날

-도종환-

버려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아는 순간부터
나무는 가장 아름답게 불탄다

제 삶의 이유였던 것
제 몸의 전부였던 것
아낌없이 버리기로 결심하면서
나무는 생의 절정에 선다

방하착(放下着)
제가 키워온,
그러나 이제는 무거워진
제 몸 하나씩 내려놓으면서

가장 황홀한 빛깔로
우리도 물이 드는 날

강사소개

서양철학(현상학) 전공, 철학박사. 대구교대 연구교수 역임.

저서에 <육망으로 성찰한 조선의 공간>, <진리의 현상학>, <여행, 인문학에 답다>, <한국불교와 서양철학> 등이 있다.

플라톤과 불교

조해정(동아대 연구교수)

1. 동양과 서양

1) 철학과 종교의 물음의 출발점은 인간 삶의 문제

-동서를 막론하고 위대한 사상가들의 물음의 출발점

-삶의 지혜 탐구 : 괴로움에서 벗어나 행복한 삶, 훌륭한 삶을 살기 위해서!

☞ 무지에서 지혜를 향해서 = 무명에서 벗어나 깨달음으로!

2) 개인과 사회

①개인 : 성찰하는 삶, 목표는 윤리적 인간의 완성(聖人)

②사회 : 어떻게 '함께' 잘 살 것인가? *사회적 규범

③세계구원 : 혼란스럽고 고통스러운 이 세계를 어떻게 바로 세울 것인가?

3) 종교와 (서양)철학

-불교와 서양종교 : 신의 유무, 자력신앙 vs 타력신앙

-불교와 서양철학 : 이원론/이분법(특히 근대 휴머니즘(humanism) 전통) vs 연기(무아, 무상, 공, 중도)

**근대 휴머니즘 이후 탐구의 목적은 삶의 지혜가 아닌 도구로서의 '지식'

베이컨, "아는 것이 힘이다!"

4) 포스트-휴머니즘(post-humanism)과 불교

-포스트휴머니즘 : 탈(post)-이원론, 탈-인간중심주의, 관계적 존재론

-불교 : 연기적 존재론, 중도(中道)

☞결국, 동과 서는 출발점은 동일했지만, 서양철학은 이분법에 기초한 근대 휴머니즘의 방향으로 전개되었고, 그 결과로서의 4차산업혁명과 인류세(人類世, Anthropocene)를 맞이하여 새롭게 반성하면서 포스트휴먼이라는 패러다임의 전회에 의해서 다시 불교적 세계관에 근접하게 된다.

2. 소크라테스와 플라톤

1) 세상에서 가장 지혜로운 사람, 소크라테스(BC 470-399, 70세)

소크라테스를 눈앞에 가진다는 것은 철학하는 데 반드시 필요한 전제조건이다. 비록 그가 먼 과거의 희미한 불빛으로만 느껴질지라도 소크라테스 없이 철학할 수 없다. 한 사람의 소크라테스를 어떻게 경험하느냐가 그 사람의 사유의 틀을 좌우한다. (칼 야스퍼스)

가. 생애

-4대 성인 중 1인 *4대성인 : 공자, 붓다, 소크라테스, 예수

-조각가/석공(아버지) + 산파(어머니) 집안

-플라톤의 스승(20세~28세), 플라톤 저서의 '등장인물'

-행동하는 철학자 : 붓다처럼 글을 남기지 않고 아테네 시민을 일깨우는 데 일생을 바침.

*신이 보낸 '등에'로서의 소명.

*소크라테스 재판 당시 민사 200-500, 형사는 500명 이상의 배심원

-〈변명〉 : 플라톤 최초의 철학저술. 소크라테스와 재판과정, 그리고 그의 죽음에 대한 기억이 생생하게 남아있을 때 저술된 가장 소크라테스적인 저작으로 평가됨.

Quiz 1) '너 자신을 알라'는 말은 소크라테스가 한 말이다. (Y or N)

Quiz 2) 유언으로 알려진 '아스클레오피스에게 닭 한 마리를 바쳐 달라'는 말의 의미는?

나. 무지의 지혜

-소크라테스는 다른 사람과 대화를 하면서 늘 스스로 '무지자'로 자처하고 있는 터에, 신은 왜 소크라테스가 가장 현명하다는 신탁을 내렸을까? 소크라테스는 법정에서 신탁의 이유를 알기 위해서 저 유명한 '문답법'을 통해서 상대방(정치인, 시인, 장인)의 '무지'를 드러내는 탐구여정을 중심으로 변론.

①정치인들보다 소크라테스가 현명한 이유

②시인들보다 소크라테스가 현명한 이유

③장인들보다 소크라테스가 현명한 이유 :

☞ 이러한 문답활동의 결과로 한편으로는 많은 증오심과 비방을 받고, 다른 한편으로는 '세상에서 가장 지혜로운 자'라는 신탁을 받게 됨.

-소크라테스는 일생을 "무지자"를 자처하며 누군가(특히 정치인과 시인들) 지혜로운 사람을 찾아다니며 "X(지혜, 용기, 정의, 절제 등)란 무엇인가"라고 캐묻곤 했는데, 물음에 대한 상대방의 답은 "X 그 자체"가 아니라 X에 대한 주관적인 견해나 주변적인 속성에 불과.

Quiz 3) 소크라테스의 죄명은 무엇일까요?

Quiz 4) "죽음을 두려워한다는 것은 현명하지도 않으면서 현명한 것으로 생각하는 것이다."라고 소크라테스가 말한 이유?

다. 신탁의 의미 : 인간의 지혜, 신의 지혜

-소크라테스가 무지에 대한 자각은 신의 지혜와 인간의 지혜의 경계에 대한 통찰이자 인간의 자기 한계에 대한 인식. 즉 "아는 것을 안다고 하고 모르는 것을 모른다고 하는 것이 아는 것"(知之爲知之 不知爲不知 是知也). 아는 것과 모르는 것을 아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탐구의 출발점.

2) 서양철학 2천년을 지배한 철학자, 플라톤(BC427-347)

**서양철학은 모두 플라톤철학의 주석이다.(화이트 헤드)

가. 생애

-대귀족 가문. 아버지 아리스톤은 전설적인 왕 코드로스의 후손, 어머니는 솔론의 후손, 남편 사후 페리클레스의 친구와 재혼. 30인과두정의 크리티아스는 외당수, 카르미데스는 외삼촌.

☞ 플라톤은 정치를 지망하지 않은 것이 비정상적일 정도로 화려한 배경을 가지고 태어나 최고의 엘리트교육을 받으며 성장.

-스승 소크라테스의 영향 : 8년간 수학(20세~28세). 소크라테스의 죽음은 플라톤이 정치에 환멸을 느끼고 철학자의 길을 걷게 된 결정적인 계기.

-소크라테스는 세 차례 전쟁에 참가한 것 빼고는 아테네를 떠난 적이 없었던 반면, 플라톤은 세계여행을 다니면서 다양한 문물을 접함. 메가라-아프리카-이집트-동방(인도, 윤희설)-시칠리아(피타고라스학파와의 만남)

-아카데미 설립(42세, 385) **기원후 529년까지 존속(거의 1000년이나!) : 헬라스의 근본적인 개혁을 위해 필요한 참된 지성인 양성 목표. 실제로 각 분야의 학자들이 모여들어 학문활동을 했으며, 여러 나라의 입법이나 정치적 자문에 파견되기도.

나. 플라톤의 대답 : 34편의 방대한 저서

-소크라테스의 X에 대한 탐구를 발전적으로 계승하여 '이데아론'으로 답변(국가론)

①**대화/극 형식** : 대화 형식은 소피스트에 의해 개발되고 소크라테스가 완성시킨 문답법에 빚짐. 플라톤 자신은 구두 가르침에 중점을 두고 문자 언어를 높게 평가하지 않았다고 보는 견해도 있음. 그의 대화편은 아테네 귀족의 우아하고 유려한 문체를 자랑하는 불후의 걸작으로 평가.

②**초기**(~40세 이전) : 소크라테스적 대화편-소크라테스의 행각에 대한 철학적 재구성/주로 윤리적 개념을 '정의(定義)'하거나 윤리적 문제와 관련된 문제들

***변론**, 크리톤, 라케스(용기), 에우티프론(경건), 프로타고라스(덕), **국가 1권(정의)** 등

③**중기**(아카데미 시절부터 60세까지) : 플라톤 자신의 목소리(이데아론)를 소크라테스를 통해 대변 *메논, 파이돈, 국가, 고르기아스, 향연, 파이드로스 등

-이데아설, 철인왕이 다스리는 이상국가

④**후기**(60세~80세까지) : 소크라테스가 등장하지 않거나 보조적 인물로 등장/이데아론보다 삶이 영위되는 이 세계의 존재론

* 정치가, 소피스테스, **티마이오스**(우주론), 법률(nomoi, 유작)

-그에게 좋은 삶이란 아름다운 우주/자연의 질서에 따른 삶. 생성소멸하는 이 세계에서 진리는 극단으로 치우치지 않는 적절한 적도, 즉 중도.

진실성(이데아)이 혼합되지 않은 것, 그것은 진실로 생성될 수 없겠고 설사 생성되었다 해도 오래 존속하지 못할 것이다

☞ 불교의 연기법과 비교.

3. 플라톤과 불교

1) 지혜와 깨달음

-불교 : 무명/무지로 인한 윤회에서 벗어나 해탈하려면 깨달음/지혜

-플라톤 : 지혜를 알아야 지혜로운 사람이 될 수 있다. 지행합일(知行合一)

2) 소크라테스의 무지와 붓다의 무기

- 소크라테스의 무지는 자신과 대화 상대방으로 하여금 지혜에 대한 탐구로 안내
- 붓다의 무기 또한, 상견(常見)과 단견(斷見)의 양 극단 너머 중도의 연기법으로 인도.

3) 플라톤의 동굴의 비유와 이제설

- 동굴 안은 세속제가 지배하는 인간 삶의 현장, 동굴 밖 '선의 이데아'는 궁극적인 진리
- 생성, 소멸의 이 세계의 소통을 가능하게 하는 언어적 관습이 세속제, 이 세속제를 통해서 승의제에 도달(세속제는 달을 가리키는 손가락이라면 달은 승의제)

4) 플라톤의 적도와 중도

- 생성소멸하는 이 세계에서 진리는 극단으로 치우치지 않는 적도의 화합
- 인연화합에 의한 연기생은 또한 중도

5) 선의 이데아와 붓다의 깨달음

- 혼의 전환 : 깨달음
- 철인왕** : 모든 것의 원인이자 원리인 선의이데아에 도달한 사람은 동굴아래의 인간사에 마음쓰고 싶어하지 않을 것. 그러나 깨달은 자로서 다시 동굴 아래로 내려가 무명의 시민들을 구제해야 할 의무가 있음. *철인왕은=전륜성왕(轉輪聖王)
- 붓다** : 깨달음 상태에서 3(혹은 5)주 동안 갈등. 범천의 권청에 의해서 초전법륜
- 차이** : 플라톤은 '국가'라는 정치 제도적 해결로, 붓다는 세계 모든 중생구제를 위한 설법의 길로.

4. 마치며

- 인간 지식과 문명의 발전은 인간성을 향상시키는가?
- 〈사회계약론〉의 저자, 루소는 학문의 발전이 오히려 인간의 도덕심을 타락시켰다고 주장함.

Quiz5) 2차대전에 참전한 군인들 중 적군에게 정조준하여 총을 쏜 사람은 얼마나 될까요?
Quiz6) 1950년 한국전쟁에 참전한 군인들의 정조준율은 얼마나 될까요?
Quiz7) 1970년 베트남전에 참전한 군인들의 정조준율은 얼마나 될까요?
①15-20% ②35-40% ③50% ④75% ⑤85% ⑥95%

(출처 : 데이브 그로스먼, 『살인의 심리학』)

강사소개

철학박사

전 영산대 부산가톨릭대 인제대 부산대 강사

현 부산대학교 인문학연구소 연구원

현 동아대학교 강사